KIA 전력 재정비…김호령·홍상삼·이정훈 엔트리 등록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나주환 부상으로 빠지고 외야수 최원준 3루로 옮겨
퓨처스 리그 뜨거운 타격 김호령 중견수 선발 출전
선발 준비 홍상삼 롱릴리프 활용 추격조 약점 보완

'윌리엄스호'가 새 전력으로 6월을 열었다.

KIA 타이거즈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변동했다.

내야수 나주환, 외야수 문선재, 투수 김현준이 엔트리에서 빠졌다. 대신 외야수 김호령, 투수 홍상삼, 포수 이정훈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KIA의 약점을 채우는 변화다.

일단 나주환은 '부상 변수'로 인한 엔트리 제외다. 나주환은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1군 선수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2일 훈련 시간에도 나주환은 배팅볼 투수를 자처하며 선수단과 함께했다.

내야에서 전천후 수비수로 활약했던 나주환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자 최원준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됐다.

올 시즌 중견수로 자리를 지켰던 최원준은 2일 훈련 시간에는 내야 글러브를 끼고 3루에서 펑고를 받았다.

"포지션 변경은 아니다"며 최원준의 내야 연습에 대해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나주환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내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최원준은 내야수로 뛰었다. 응급요원이다. 그동안 외야 위주로 수비 훈련을 했기 때문에 3루에서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령은 전력 재정비를 위해 예상보다 일찍 불러들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부상이 재발한 만큼 김호령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1군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김호령이 퓨처스리그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는 등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콜업이 결정됐다.

김호령은 지난 5월 26일 KT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부상 후 첫 실전에 나선 뒤 31일 한화전까지 6경기에 나왔다. 17타수 8안타, 타율 0.471과 함께 3타점을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이날 경기에서 톱타자 겸 중견수로 김호령을 선발 출전시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호령으로 외야의 수비벽을 강화하고, 스피드를 높인 KIA는 '왼손 포수' 이정훈으로 타선에 무게를 실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정훈이 2군에서 잘해줬고, 왼손포수 옵션이 생겼다. 또 좌타자 대타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은 최근 퓨처스리그 10경기에서 58타수 20안타(타율 0.345) 3홈런 5타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대타 타율이 0.059에 그치고 있는 KIA는 힘 있는 이정훈으로 뒷심 싸움에 힘을 더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상삼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KIA가 안정된 선발진과 강렬한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격조가 약점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상삼으로 불펜에 경험과 구위를 더할 예정이다. 불펜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발 로테이션의 운영폭을 넓히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상삼이) 선발 위주로 준비했지만 롱릴리프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 1, 2이닝도 소화할 수 있다"며 불펜 역할을 이야기한 뒤 "곧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선발진 이닝 조절도 필요할 것이다. 선발 휴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 대체 선발로도 활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새 전력으로 빈틈을 채운 KIA가 6월 승률 쌓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호령

홍상삼

이정훈

KBO 야구장 미세먼지·기상정보 서비스 시작

KBO가 야구팬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야구장 미세먼지·기상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KBO는 2일부터 돔 경기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KBO리그 전 구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구장 미세먼지 수치를 KBO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현재 미세먼지 국가측정망과 각종 앱에서 구장 주변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구장의 미세먼지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KBO는 시즌 개막 전 환경부 성능인증제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장당 2대씩 설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우 "이제 겨우 한 달 잘했는데 너무 주목 받아…들뜬 감정 눌러줘야 한다"

덕아웃 T 톡톡

▲눌러줘야 해요 = '선발 경쟁' 승자가 돼 올 시즌 선발 자리를 차지한 이민우, 4~5선발 자원으로 언급됐던 이민우는 캠프에서부터 가장 꾸준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운드의 확실한 카드가 된 이민우는 "이제 겨우 한 달 잘했는데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월을 보낸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어 "겸손하게 해야 한다.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다. (들뜬 감정을) 눌러줘야 한다"며 "어렵게 생각하면 잘됐던 것 같다. 이번 두산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웃었다.

▲커브를 빨리 던졌더니 = 박준표의 삼진 비결은 '스피드'다. 올 시즌 KIA 투수들은 1일 현재 19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선발진은 물론 필승조도 탈삼진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 불펜의 마당쇠 박준표도 올 시즌 11이닝을 던지면서 1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이닝당 평균 0.54개였던 탈삼진이 올 시즌 1.09로 늘었다. 박준표 스스로도 놀란 페이스. 박준표는 "삼진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잡고 있다"며 "커브를 빨리 던졌더니 상대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놀라운 움직임의 커브를 가진 박준표는 올 시즌 스피드로 완급 조절까지 하고 있다. 박준표는 "빨리 던지니까 커브 스피드가 10㎞ 정도 차이가 난다. 원래 던지는 각 큰 커브와 빠른 커브를 잘 활용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 것 알고 있다. 헬로우! = 윌리엄스 감독에게 확실하게 복귀 인사를 한 포수 이정훈이었다. 이정훈은 2일 롯데와의 경기에 맞춰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경기 전 진행된 포수들의 송구 훈련 시간에 윌리엄스 감독이 도우미로 나섰다. 윌리엄스 감독은 포구 위치에 서서 심판 역할을 자처하며 아웃과 세이프를 외쳐줬다. 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이 심판 역할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이정훈의 악송구(?)가 나왔다. 깜짝 놀라 공을 피한 윌리엄스 감독은 "1군에 온 것 알고 있다. 이렇게 인사 안 해도 된다"며 "헬로우"를 외쳐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릎꿇은 리버풀 선수들…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지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 선수들이 훈련 중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 저항 시위에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피르힐 판데이크 SNS 캡처〉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단속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전 세계에 항의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 선수들도 이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일 리버풀 선수 29명이 훈련 중 홈구장 안필드의 센터서클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한 항의 시위에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리버풀 선수 피르힐 판데이크,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 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LivesMatter)는 해시태그와 함께 '뭉치면 강하다'(Unity is Strength)라는 글과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미국프로풋볼(NFL)의 콜린 캐퍼닉이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2016년에 경기 전 미국 국가 연주 시간에 국민 의례를 하는 대신 무릎을 꿇는 행동을 취한 뒤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같은 방식으로 인종 차별에 항의의 뜻을 드러내 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항의 시위에도 스포츠 스타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제이든 산초(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전날 파더보른과의 경기에서 결승 골을 터트린 뒤 경고받을 것을 각오하고 유니폼 상의를 벗어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라는 문구가 적힌 속옷을 드러내 보였다.

같은 날 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의 공격수 마르쿠스 튀랑도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한쪽 무릎을 꿇어 인종차별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메시 바르사와 1년 더 계약해지 옵션 행사 안해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가 최소 1년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노우를 누빈다.

AP통신은 메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하지 않아 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뛰는 게 확정됐다고 2일 보도했다.

계약 해지 옵션은 현지시간으로 6월 1일까지 발동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바르사) 유스 출신으로 17살이던 2004-2005시즌 성인 1군 무대에 데뷔한 메시는 이로써 무려 17시즌을 바르셀로나 한 팀에서 보내게 됐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474경기 출전에 438득점을 기록 중이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리그가 중단된 뒤 처음으로 완전한 단체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